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명희

서원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An Analysis of the character for the Elderly to Participate in Senior Employment

Myoung-Hee CHO

Dept. of Living Welfare, Seowon University

1. 서론

프랑스와 미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각각 115년과 75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약 19년으로 서구나 일본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고령화와 출산을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오는 2016년 3,649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부양비는 2000년도에 10.1로 생산가능인구 10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노인부양비가 21.8로 늘어나 4.6명당 1명의 노인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6).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사적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노인의 4품(빈곤·질병·고독·역할상실)해소, 노인의 잔존능력에 대한 경제사회적 가치·존엄 인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유형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노인인력개발원)와 지자체 주관으로,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지자체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며, 거리환경개선·자연환경보호·교통질서 및 주차제도·지역행정조사·지하철 이용질서 제도·공공시설 관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 한함) 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교육형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하였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 및 문화재시설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 또는 해설을 하는 일자리며, 1-3세대강사파견·노-노교육강사파견·취미활동강사파견·체육(건강)활동강사파견·문화재해설·숲생태해설 등이다. 복지형은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며,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소외계층지원·(노인)가구주거개선·아동청소년보호(상담·선도활동 등), 문화복지사업 등이다.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며, 시험감독관·주유원·주례사·경비원·가사도우미·미화원·식당보조원 등이다. 시장형은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며, 식품 제조·판매, 특산물 제조·판매, 공산품 제조·판매, 공동작업장운영·지하철택배·세차 및 세탁·지역영농사업 등이며, 현재 시장형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체 노인일자리의 10%로 이의 대부분을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문지 조사를 이용한 실증연구이다. 조사문항은 개인적 특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2월 15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성별로는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많았다. 학력은 낮은 노인이, 과거 직업별로는 주부·무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활비는 자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용돈은 하인 경우, 경제 상태는 나쁜 경우, 참여 동기는 돈을 벌기위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복지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성별로는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64세 이하가 많았다. 학력은 높은 노인이, 과거 직업별로는 사무직·자영업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활비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용돈은 중인 경우, 경제 상태는 좋은 경우, 참여 동기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았다.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성별로는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65-74세가 많았다. 학력은 낮은 노인이, 과거 직업별로는 농업·단순노무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활비는 국민연금수급자인 경우, 용돈은 하인 경우, 경제 상태는 나쁜 경우, 참여 동기는 일상생활을 잘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았다. 인력파견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성별로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65-74세가 많았다. 학력은 높은 노인이, 과거 직업별로는 전문직·공무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활비는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용돈은 상인 경우, 경제 상태는 좋은 경우, 참여 동기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았다.

5.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로 참여하는 노인의 특성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동기와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일자리사업 참여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유형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길어지고 있는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일자리 사업의 개발·향상으로 사료된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인적자산을 사회에 환원해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생계수단도 되고 사회참여에 의한 존재감 확인과 향후 성장 동력 감소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 및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권구영·최정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과 삶의 질간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제38권, 2007.
- [2] 권영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5.
- [3] 김동배, “고령자취업 적합 직종 발굴 및 수요처 개발방안”, 2004년 2차 노인일자리사업 포럼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pp.6-45, 2004.
- [4] 변계관·조준행,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7.
- [5] 임춘식, “노인 취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4년 2차 노인일자리사업 포럼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pp. 46-79, 2004.
- [6] 황명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 [7]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 집계 결과” 2006.